

【연구논문】

# 고독한 군중의 정중한 무관심: 『옥스보우 사건』(*The Ox-Bow Incident*)과 19세기 미국 서부 폭력의 재현

이동환  
(경인교대)

## 1. 서론

아렌트(Hannah Arendt)는 『폭력론』(*On Violence*)에서 “폭력적 행위의 실체는 수단과 목적이라는 범주로 규정되는데, 인간사에 적용되었을 때, 이것의 주된 특성 상 목적 달성 및 정당화에 필요한 수단에 항상 압도될 위험성이 있다”(Arendt, 4)고 경고하였다. 정의 구현 목적으로 정당한 집행 수단을 사용해야 함에도 집단 동조를 얻은 심증이 때로는 정의의 방패막이 되어 폭력적 집행 수단만 물신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 서부를 배경으로 폭력과 정의 구현을 다루는 월터 클락(Walter Van Tilburg Clark)의 장편소설 『옥스보우 사건』(1940)은 위의 문제의식이 잘 구현된 작품이다. 1885년에 네바다(Nevada)와 캘리포니아(California) 사이 시에라 산맥(Sierra Mountains) 일대의 유명마을(ghost town)과 주변의 야생 자연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 린치 사건은 이 소설의 골간을 이룬다.

미국 서부 변경지대(frontier)의 폭력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슬로킨(Richard Slotkin)의 3부작인 『폭력을 통한 재생』(*Regeneration Through*

*Violence*, 1973), 『치명적 환경』(*The Fatal Environment*, 1985), 그리고 『총잡이의 나라』(*Gunfighter Nation*, 1992)를 통해 시도된 바 있다. 그는 식민지 시대부터 20세기까지 미국 변경지대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다양한 의미가 사회문화적으로 굴절되는 양상을 포착한다. 우선, 식민지 시대의 “미국인은 경계선을 넘어 ‘인디언 지방’으로 들어가 더욱 원시적이고 자연적인 삶으로의 ‘퇴행’을 경험하면서, ‘대도시’의 헛된 가치들을 일소하고 새롭게 정화된 사회적 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Slotkin 14). 변경 체험은 야생자연과 “야만적인” 원주민과 기존 사회의 악함 모두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신적 연단을 거쳐 미국인으로 거듭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백인이지만 인디언들을 잘 알기에 두 가지 하나로 결합된 주인공 호크아이(Hawkeye)를 내세운 19세기 초반 쿠퍼(James Fenimore Cooper)의 낭만주의적 신화화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산업 자본이 서부 변경지대에 진출하면서 가난하지만 개인주의적인 하층민의 투쟁이 격화되면서 해밀턴식 공화주의(Hamiltonian republicanism)와 제퍼슨식 농본주의(Jeffersonian agrarianism)라는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다(Slotkin 22). 『총잡이의 나라』는 이런 대립 양상이 20세기 대중문화까지 스며든 점을 다루고 있다. 슬로킨은 이를 위해 “현대 문화에서 영화의 중심적 역할 및 문학과 정치 언어 모두에서 영상 이미지의 확산되는 영향력”을 감안하여 위 책에서 “20세기 서부서사 논의를 영화로 국한 짓고 서부 문학을 거의 생략하고 건너뛰었다”고 언급한다(Slokin 24).

한편, 이 소설은 웨스트브룩(Max Westbrook)이 원형비평에 입각한 인물 유형 분석을 통해 “여태껏 나온 카우보이 소설들 중 최고이거나 적어도 최고 중 하나”(Westbrook 105)라고 상찬한 이래로 대표적 서부 소설의 고전으로 자리매김했다. “미국 서부에 관한 낭만적 시각으로부터의 건전한 탈출”(Tepker 1216)이라는 말에 집약되었듯이, 이 작품은 소설이나 영화의 정형화된 서부 묘사로부터 벗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1943년에

동명의 영화 역시 “공황기에 찌든 미국에 꽤나 실질적인 위협이었던 집단 폭력을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비극적’ 서부영화”라는 칭호를 얻었다(Crain 240). 고독한 총잡이 영웅 서사로부터의 탈피는 세계대전의 여파로 유행한 염세적 세계관과 이에 입각한 실존철학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즉, 이 작품을 “집단 폭력에 대한 고발”과 “민주적 원칙의 강조” 보다는 “인류에 대한 절망을 독자에게 남겨주는” 허무주의에 입각한 “실존주의 소설”로 이해했던 것이다(Crain, 241). 린치 가담자들은 인종주의라는 집단 폭력에 사로잡힌 나치 독일과 동일시되었고 작가 스스로도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다(Bates 37; Felix 645; Hada 147; Tepker 1219). 정리하면, 기존 연구들은 정형적 서부 묘사 탈피, 나치즘과 파시즘의 집단 광기 비판, 20세기 실존주의, 절차적 정당성 준수, 그리고 선악 이분법을 탈피한 선인·악인·관찰자라는 세 가지 인물 유형 분석을 통해 정의 구현과 폭력의 정당화라는 작품의 대주제를 풀어낸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작품에 형상화된 19세기 미국 서부 폭력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서 “정중한 무관심”(civil inattention)을 체현한 20세기 “고독한 군중”(lonely crowd)을 분석의 준거점으로 삼고자 한다. 현대 사회의 고독한 개인이 처한 내면세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서부를 소재로 다룬 대중문화 속의 사회경제적 이데올로기에 주목하는 슬로킨의 연구 및 폭력과 정의를 포함하여 “미국 서부의 신화화된 가치를 해체”(이승은 201)하는 양상에 초점을 둔 기존 비평들과 차별화된다. 위협적이거나 알 수 없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불안함을 느끼는 개인들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집단 논리에 동조하며 개인의 안락함을 영위하려 한다. 다수로의 도피는 고프만(Erving Goffman)이 제안한 정중한 무관심에 해당된다. “정중한 무관심에 따르자면, 개인에게는 눈앞에 나타난 타인들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거나, 혹은 피하기를 원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는 상태가 함축되어 있다”(Goffman 84). 또한 고독한 군

중은 리스만(David Riesman)이 동명 저서에서 인물 유형을 주어진 관습을 준수하는 전통지향성(tradition-directed), 자신의 일관된 원칙과 규범을 따르려는 내적지향성(inner-directed), 그리고 원칙보다는 다수의 분위기에 따라 움직이는 타자지향성(other-directed)으로 구분한 것 중에서 마지막 인물 유형에 해당된다. “타인의 행동과 희망에 예외적으로 민감한”(Riesman 22) 타자지향적 인간은 20세기 중엽 이후에 사회의 주류를 이룬다. 이들은 군중 속에서 표면적인 친근함을 유지하면서 두려움을 희석시키는 전략을 취한다(Riesman 25). 내적지향인 크로프트(Art Croft)와 제럴드(Gerald Tetley), 전통지향적인 테틀리(Major Tetley)와 타이러 판사(Judge Tyler), 그리고 내적지향과 전통지향을 모두 지닌 데이비즈(Arthur Davies)를 제외한 이 소설의 인물들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고독한 군중의 일원이 되어 정중한 무관심을 확보하려 한다.

작가는 고독한 군중의 정중한 무관심을 형상화하기 위해 상이한 이유로 집단 폭력에 가담하는 다양한 인물 군상을 19세기 말 서부에 모아놓는 역사적 상상력을 발휘했다. 개인과 사회를 한 몸으로 이해하는 일원론적 초월주의자, 서부횡단철도가 역마차를 대신하면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마부들, 남북전쟁에서 남군 장교로 참전하여 경험한 패배 의식을 극복하고자 서부로 이주한 마초적 기질의 농장주, 폭력을 대하는 허무주의적 태도를 보여주는 실존주의자, 남성보다 더 남성적으로 폭력적 수단에 탐닉하는 여성처럼, 작중 인물들은 상이한 시공간을 대변하는 인물 유형에 해당된다. 이들은 추격대(posse)에 가담하여 각자의 정의관이나 불만을 내뿜는다. 군중이라는 느슨하고 넓은 범주는 정중한 무관심의 가면을 쓰고 평소 신념이나 성정을 극단적으로 증폭시켜 표출하는 장을 마련해주며, 이런 가운데 누군가는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작가는 고독한 군중의 정중한 무관심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 인간적 질서의 일시적 속성과 대비되는 끈질긴 생명력의 원천, 이야기의 여러 국면에 간여하는 동

인(agent), 그리고 폭력과 정의를 대하는 작가의 생각을 간접적으로 알려 주는 지표로 자연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인간의 의지는 작품 곳곳에서 자연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눈보라가 쳐서 사태를 분간할 수 없는 날씨는 1인칭 관찰자인 크로프트의 총상, 성급한 린치 집행 유도, 그리고 보안관이 린치 가담자를 목인하는 구실이 되는 등 작품의 주요 국면에 간여한다.

## 2. 본 론

작품의 1인칭 관찰자인 주인공 크로프트의 직업은 보디가드이자 일꾼으로 동료 카터(Gil Carter)와 함께 서부 이곳저곳을 떠도는 처지이다(63-64). 소설은 서부의 자연 풍광 속을 이동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지그재그식 철도는 겨울에 몰아친 폭풍우로 물이 넘치며 황폐해졌는데, 산썩은 역마차가 달리는 것을 멈춘 이후에 그곳에서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다. 바람이 잘려나간 적토무더기 밑의 고립지대 몇 곳에서는, 봄기운을 품은 태양이 여름처럼 뜨거웠으며 공기는 뜨겁게 녹아내리는 솔향으로 가득했다. 잘려나간 곳들 옆면에서 개울마냥 몇 줄기로 물이 툭툭 떨어졌다. 어치들은 나무에서 꺾꺾거렸으니, 빈터에서 번개처럼 짹짹 고 긴 자맥질을 하듯 햇빛을 스쳐갔다. 다람쥐와 얼룩다람쥐들이 산썩 안에서 지저귀다가 눈으로 흠뻑 젖은 통나무 꼭대기를 따라 이동했다. 바깥쪽으로 눈길을 돌리면, 바람이 우리에게 다가와 셔츠 속 땀을 말려 주었고, 뜨거운 송진 대신, 늪 같은 초록빛 계곡 냄새를 불러들였다. 서쪽에서는 이른 열기 때문에 생겨난 부류에 해당하는 몇몇 구름의 꼭대기가 보였으나, 조용히 놓여있는지라, 우리 위쪽 하늘은 맑고도 깊었다.

It was a switch-back road, gutted by the run-off of the winter storms, and with brush beginning to grow up in it again since the stage had stopped running. In the pockets under the red earth banks, where the wind

was cut off, the spring sun was hot as summer, and the air was full of a hot, melting pine smell. Rivulets of water trickled down shining on the sides of the cuts. The jays screeched in the trees and flashed through the sunlight in the clearings in swift, long dips. Squirrels and chipmunks chattered in the brush and along the tops of snow-sodden logs. On the outside turns, though, the wind got to us and dried the sweat under our shirts and brought up, instead of the hot resin, the smell of the marshy green valley. In the west the heads of a few cloud showed, the kind that come up with the early heat, but they were lying still, and over us the sky was clear and deep. (3-4).<sup>1)</sup>

위의 인용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물리적 자연 변화 속에서 동물들이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역마차가 지나다니던 흔적을 덮어버리는 산썩(sagebrush)에 함축되었듯이, 자연은 인간사와 별개로 나름의 활력과 질서를 지니고 있다. 무심한 자연은 서부로의 이주가 한풀 꺾여 쇠락하는 브리저스 웰스(Bridger's Wells)의 행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다. “서너 그루 중 하나 정도는 죽거나 잎이 말라버린” 길가, 페인트를 칠한 싸구려 판자가 붙어있는 건물,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은 마당에 잔디가 길게 자라도록 내버려둔 모습은 브리저스 웰스가 “역마차 정거장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절반은 비어버린 마을”로 변하여 “대부분의 장소들이 스스로를 돌보도록” 내버려진 상태임을 웅변한다(4). 이곳은 유명마을이 된지 오래되지 않아 인간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을씨년스럽지만 시간이 흐르면 작품 첫 대목의 약동하는 자연의 힘에 압도될 운명이다. 유구한 자연과 유한한 인간사를 대조시킨 장면은 악당을 물리치며 정의가 구현되는 서부 대중문학의 해피엔딩이 이곳에서 통하지 않을 것임을 환기시킨다.<sup>2)</sup>

1) Water Clark, *The Ox-Bow Incident*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1). 이하 괄호 안 숫자는 이 판본의 해당 면을 의미함.

2) 실제로 서부의 “프론티어 거주자들은 불가피하게 동부의 경우와 비율로 따져볼 때 더 많은 실질적 비극에 고통을 겪어야 했다”(Peterson 243). 서부 대중문학의 해피

인간의 유한함은 브리저스 웰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캔비 살롱(Canby's saloon)의 주인장 캔비의 입을 통해 타자지향적 삶에 매몰되는 것으로 구체화된다. 캔비는 이곳에 온 크로프트와 카터에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먹기, 자기, 마시기, 도박하기 혹은 싸우기”(11)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증명하듯, 카터는 도망간 애인 로즈(Rose Mapen)를 찾고 싶어 했기에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시고 도박하고 싸우는 것에 휘말린다. 기껏해야 주정뱅이나 무법자들을 감시하러 돌아다니는 보안관 리슬리(Risley)의 존재만이 이곳에 법과 질서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위의 다섯 가지는 목적을 상실한 자들의 전형적인 행동양태로, 즉물적인 삶에 탐닉하는 이들은 언제라도 계기만 주어지면 폭력적으로 돌변할 수 있다.

이 순간 전해진 킨케이드 살해 소식은 폭력의 기폭제가 된다. 캔비는 밖에서 소란스러운 일이 생기자 린치가 벌어진 것이라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드류의 방목장(Drew's range)에 내려와 킨케이드(Larry Kinkaid)를 죽였고, 사람들이 소떼도 사라졌다 생각한다”(28)고 언급한다. 목적의식을 상실한 사람들은 “뭔가 만들어내는 것이 집단의 관심사가 아닌 가운데 사회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자”(Riesman 65) 타자지향적으로 변모하여 결과적 정당성을 좇기 위한 행동을 하려 안달이다. 판리(Farnley)와 더불어 집단 폭력적 분위기를 띄우는 일등 공신인 바틀렛(Bartlett)은 “우리가 좇는 것은 살인범이지 단순 소도둑이 아니다”(34)라고 주장한다. “그는 오스굿(Osgood), 타일러, 그리고 데이비즈와 같이 확실히 일하지 않고 말로 먹고사는 자들을 대하는 목장 노동자들과 목장주들의 오랜 분노를 이용”(Houghton 1247-48)하여 사람들을 자극한다. 바틀렛의 논리가 마을사람들에게 통했다는 사실은 아래 대목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

엔딩은 신화화되어 만들어진 것일 뿐 실제로는 치안 부재 속에서 비열하게 죽고 죽이는 비극적 공간이었다.

그[바틀렛]가 언급한 어느 누구도 소와 땅을 소유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자기네 말과 복장 말고는 소유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았으며, 이들이 알 기회가 있던 종류의 여자들이란 여느 소도둑이 이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None of the men he[Bartlett] was talking to owned any cattle or any land. None of them had any property but their horses and their outfits. None of them were even married, and the kind of women they got a chance to know weren't likely to be changed by what a rustler would do to them.  
(35)

오스굿 목사는 이처럼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이 범인 추격대에 가담하는 모습을 “제정신이 아닌 폭력”이라고 비판한다(35). “킨케이드가 이 근방 파이크스 홀(Pike’ Hole) 사람들 대부분에게 별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들의 소가 도둑맞은 것도 아니라”(115)는 점은 폭력이 맹목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 때, 사람들은 각자만의 이유로 추격대에 동조한다. 카터는 몬태나(Montana)에서 추격대의 일원으로 역마차를 털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소년을 처단한 일로 “사태를 바라보는 그의 방식을 통째로 바꾸면서”(39) 상흔을 털어내고자 추격대에 가담한다. 이런 점은 마부 와인더(Bill Winder)와 하트(Gabe Hart)도 마찬가지이다. 킨케이드가 직계혈족이거나 절친한 동료도 아님에도 이들이 이처럼 추격대에 가담하여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유는 “저 빌어먹을, 도둑질하는 철도들”(44) 때문이다. 와인더는 “국토를 가로질러 넘어와 백 년 동안 동부에서 자기들이 했던 동일한 방식으로 캘리포니아에서도 손이 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훔쳐” 악독하게 법을 찬탈하였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때 즉시 이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법을 되찾았어야 했다”고 주장한다(44). 그는 이어서 철도가 동부의 악한 기운을 끌어들이었다고 개탄한다.



아이고, 나는 악취나는 인디언 녀석을 싫어하지만, 인디언 녀석 냄새는 철도일 하는 자와 비교해보면 향기롭다 하겠소.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 이 지역을 지키고 싶다면, 인디언 녀석들이 철도를 망가뜨리도록 도와주는 편이 나을 듯하오. 그렇소, 진짜로, 우리가 그러는게 말이오. 그런데 이와 동일한 법을 당신이 제지하려는 것이오—살해범이 도망쳐 범죄를 감출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규칙대로 변명거리를 찾도록 도와주는 부류의 법 말이오.

By God, I hate the stink of an Injun, but an Injun smells sweet comparin' to a railroad man. If we'd wanted to keep this country for decent people, we'da helped the Injuns bust up the railroad, yes, by God, we woulda. And that's the same law you're tryin' to hold us up for, ain't it—the kind of law that'll give a murderer plenty of time to get away and cover up, and then help him find his excuses by the book. (44)

소설의 시작부에서 역마차의 흔적을 덮어버린 산쪽의 이미지는 인간사의 무상함 이외에 1869년 대륙횡단철도 건설 이후에 철도가 역마차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으로 정착된 현실의 이면이기도 하다. 이런 시대 변화로 인해 역마차에 기대어 살아가는 마부들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크로프트는 “지금 1885년이 되어, 링컨(Lincoln)이 죽고 그랜트(Grant)도 떠나고 나니, 철도가 와인더와 같은 저 소소하고 열외적인 존재들만 빼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면서 “마차운전은 여전히 충분히 힘들었지만, 급료는 카우보이만큼이나 형편없었으니 마부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니었다. 이런 점을 와인더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45)라고 덧붙인다. 경제적 여건 변화가 브리저스 웰스 일대에 폭력적 기운을 불어넣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은 폭력이 사적인 원인으로만 발생하지 않음을 암시한다. 즉, “와인더에게 희생자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힘에 의해 발행한 일”인 것이다(Bates 41).

데이비즈는 군중 심리에 기대어 감정을 분출하는 와인더에게 비판적이다. 판단 주체가 “우리들 나머지. 정상적인 자들”(45)이라는 와인더의 논

리는 타인을 배제하는 폭력으로 변질되기 때문이다. 가령, 서부로 축수를 뺀어 생계를 위협하는 철도를 타자로 설정하는 논리는 원주민인 “인디언 녀석들”이 이주민인 와인더 또한 타자라고 비난하는 논리로 되 돌아온다. 데이비즈가 생각하는 정의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달성 가능하다. 그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가장하면서 사람들이 법을 무시할 때 무한대로 더욱 치명적으로 질병과 같이 퍼져나간다”(47)고 우려한다. 데이비즈는 “사회의 양심이란 진실한 법, 정의의 코드, 옳고 그름에 대한 우리네 지각의 본질”이라며 신과도 같이 분리하여 존재하는 “인간의 도덕적 천성이라는 정령”과 상통하는 것으로 풀이한다(48). 이런 그의 논리는 천상의 신성함이 인간의 양심에 스며들고 이런 개인들이 모여 사회의 양심을 이룬다는 초월주의(transcendentalism)와 연결된다. “국가 혹은 인종의 영혼은 한 개인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성장한다”(50)는 그의 견해는 천상의 신성함이 만물에 스며들었다는 초월주의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런 그에게 법은 인위적 제도라기보다는 초월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수단으로 비추어진다. 그는 이처럼 인간관계와 무관한 원리에 입각하여 사태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끌어들이는 인명의 협력에 의해 운영된다”(Riesman 111)고 보는 내적지향적 인간에 속한다.

크로프트는 양심적 개인이 모여 만든 바람직한 제도를 가지고 초월적 정의를 구현한다고 보는 데이비즈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크로프트는 데이비즈가 주장한 “사회의 양심을 표현하는 법률,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대중의 지각으로부터 생겨나는 개인의 양심”(49)처럼 종교적 신성함을 지닌 절대적 가치로 법과 정의를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본다. 그는 “그저 내가 보기에 당신이 때때로 법들과 이를 대변하는 사람들을 바꿔야 하는 듯 보인다”(49)며 법을 가변적이고 상황의존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판단 주체나 상황의 변화로 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는 크로프트의 관점은 맥락을 초월한 절대적 차원의 정의를 추구하는 데이비즈의 경

우와 구분된다. 데이비즈는 “타일러 판사가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가 여기에 꼭 있어야만 돼요. 보안관 리슬리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50)이라며 법적 판단과 집행을 수행하는 외적 권위를 초월적 정의 구현자와 동일시한다. 초월주의의 일원론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개념도 모호한 고정불변의 정의를 이해하다보면 자칫 현실의 외적 권위가 정답인 듯 착각하기 쉽다. 맥락을 초월한 절대 양심 또한 다수의 논리에 잠재된 폭력처럼 교조적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로프트는 군중의 폭력을 경계하는 데이비즈의 주장 속에도 다른 의미의 폭력성이 숨어있음을 간파한 것이다.

크로프트는 데이비즈의 정의론에서 행동하지 않는 양심이 비의도적 폭력의 간접적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나는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50)며 판사와 보안관을 부르는 임무를 대신 수행해 달라고 크로프트에게 떠넘기는 데이비즈의 언행불일치를 보여준다. 게다가 추격대 출정이 결정된 상황을 두고 “여전히 우리를 치유할 요량이시요?”라며 크로프트가 던진 도발적인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을 듯 하오”(95)라고 대답하면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계도할 의향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한다.

크로프트가 데이비즈의 요청을 받고 타일러 판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목격하는 변화무쌍한 날씨는 초월적 정의에 집착하는 데이비즈를 향한 그의 비판의식이 담겨있다.

하늘이 이제 진짜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돌풍이 다가오고 있었거나, 혹은 내가 짐조를 알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이다. 하늘이 대체로 햇빛으로 채워지기 전에는, 구름 몇 개의 그림자만이 땅에 닿지 않았던 바람 속을 짹짹 가로질러갔는데, 마치 눈이 거의 없는 동쪽 구릉지 위에서 검게 불타버린 무리와도 같아 보였다. 이제 대부분 그림자로 덮였으니, 그저 약간의 햇빛이 뚫고 들어와 거리의 온갖 사람들과 말을 향해 잠시 반짝였으며, 총과 안장의 금속 부분에 윈크를 하고 큼지막한 데이비즈의 가게 간판과 여관의 축 늘어진 흰 베란다를 비추는 것이었다. ... 바람은

눈이 오기 전처럼, 차고 눅눅한 느낌이 나는 목직한 것이었는데, 때때로 휘파람까지 불며 회랑 아래로 매우 강하게 불어대니, 심지어 내가 아는 다른 어떤 것보다 네바다를 더욱 재빠르게 생각나도록 했던 것이다.

The sky was really changing now, fast; it was coming to storm, or I didn't know signs. Before it had been mostly sunlight, with only a few cloud shadows moving across fast in a wind that didn't get to the ground, and looking like burnt batches on the eastern hills where there was little snow. Now it was mostly shadow, with just gleams of sunlight breaking through and shining for a moment on all the men and horses in the street, making the guns and metal parts of the harness wink and lighting up the big sign on Davies' store and the sagging white veranda of the inn. ... It was a heavy wind with a damp, chill feel to it, like comes before snow, and strong enough so it wathered under the arcade and sometimes whistled, the kind of wind that even now makes me think of Nevada quicker than anything else I know. (52)

화창하던 기운이 사라지고 눅눅한 돌풍이 불어와 곧 눈이 내릴 기세로 바뀐 날씨는 추격대에 가담하고자 무장을 한 채 거리로 모이는 사람들의 언행이 달라지는 점과 중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절대적 정의와 맹목적 폭력에 대한 크로프트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다. 그는 “데이비즈의 주장이 상식적이며 강건하거나, 아니면 유쾌하다는 것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했는지 확신하지 못했다”(56-57)고 고백하며 데이비즈 역시 군중 심리에 매몰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적한다. 이처럼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작중 인물들을 관찰하는 그의 모습은 리즈만이 『고독한 군중』에서 언급한 “자기 삶의 목적에 충실할 것에 대한 요구와 자신의 외부 환경의 충격들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Riesman 17) 내적지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크로프트는 추격대 가담자들이 개인적 불만을 투사하고 싶은 점에 이외에도, 집단 폭력에 가담하지 않았을 때 수반되는 사회적 고립에 두려움

을 느낀다는 사실을 직시한다.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겁쟁이로 여겨질 것, 도덕적 겁쟁이가 아니라 신체적 차원의 겁쟁이로 여겨지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56). 사회적 낙인이 주는 엄청난 공포는 자발적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 정중한 무관심을 향유하도록 사실상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작품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폭력 고발, 정의의 본질, 그리고 인간 실존의 위기라는 철학적 명제에 국한되지 않고 고독한 군중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소외라는 사회학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있다.

사람들은 데이비즈의 주장처럼 무리 속에서 안락함을 찾으려 하기에 “그들이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구해야 될 것”(57)이라는 명제가 충족되어야 추격대에 가담한다. 사람들이 엄중한 사태 인식에 치중하기 보다는 별 의미도 없는 진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희희낙락하면서 자기들이 타는 말이 어떨지에 관한 걱정을 앞세우는 모습(70)은 추격대에서 겪을 폭력의 두려움을 정중한 무관심으로 포장하며 감추고 모임 속에서 주도적 지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애둘러 표현한 것이다.<sup>3)</sup> 이런 정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추격대장 자리는 남북전쟁이 끝난 후 가장 먼저 계곡에 정착한 농장주 테틀리에게 돌아간다. 그는 여장부 그라이어도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테틀리]가 오는 곳마다 매사가 항상 잠잠해졌으며, 테틀리가 말해야 하는 것 이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게 들리지 않았다”(80). 이런 점은 그를 추격대장으로 추대하여 정중한 무관심을 누리려는 군중 심리를 보여준다. 그는 남부군 기병대 퇴역 장교이자 노예소유주의 아들(79)로 “[남부 사회] 상실한 대의(Lost Cause)에 대한 깊은 애착을 품고 재건기 남부로부터 도망쳤다”(Flora 151). 이런 사실은 테틀리가 아들까지 포함하여 “자신을 개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집단적 가치의 구현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리즈만이 분류한 전통지향적 인물임을 암시한다(Riesman 17).

3) 리더를 희생양으로 삼는 집단 논리는 폭력의 책임을 히틀러(Adolf Hitler)와 같은 지도자의 자질 결여로 귀속시키는 해석으로 연결된다(Tepker 1220).

타일러 판사 역시 개인의 주체적 판단이 아닌 전체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서 전통지향적 인물로 볼 수 있다. 그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업무 영역만 신경을 쓰는 관료주의적 태도를 취한다. 그는 크로프트와 만나서 린치와 같은 무법이나 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데이비즈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나에게는 치안 유지 권한이 없다”(64)며 적극적으로 문제에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그는 서부의 거친 환경과 싸우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과 달리 하인들에 둘러싸여 주어진 조건에 안주하기에 ‘거친’ 사람들과 가까이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전통지향성은 “직접적인 재산, 존경, 다차원적 능력, 혹은 건전한 열에너지 발산이 아니라 [가벼운] 취향을 내보이는 것”(Riesman 142)에 만족하는 타자지향적 마을 사람들에게 조롱 거리일 뿐이다. 가령, 판사가 함부로 준동하지 말 것을 경계함에도 아녀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치고 떠들어댄다(82). 그의 권위 실추와 자발적 격리는 어느 노인이 드류의 목장(Drew's range)에서 3명이 죽었다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크로프트가 1명이라 말하는 등(68) 소문의 확산에 간접적으로 일조한다.

폭력 사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전유하려는 점은 아녀자들이 보이는 제각각의 반응에서도 드러난다. 크로프트는 “내 추측에, 남자의 아내로 보이는 여자가 말 옆에 서서 두 손으로 남자의 다리를 붙들고 있었다. 여자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뭔가를 말하려 했는데 울지는 않으려 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머리를 옆으로 짧게 흔들었다”(66)는 점, 그리고 “아마 두 세 살쯤 된, 어린 아이가 집 앞 관목으로 나와 양 옆구리에 손을 얹고 심하게 울고 있었다”(67)고 주변 상황을 묘사한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많은 수의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집 밖으로 내보내어 즐거웠을 터임에도, 이들은 남자들만큼이나 흥분하였으나, 사실 어떻게 되든 아무런 차이도 없었던 것”(68)인 모습이 펼쳐진다. 심지어 추격대에 가담하기까지 하는 싸구려 여관주인 그라이어(Genny Grier)는 사람들에게 일

명 엄매(Ma)로 통하는 육중한 체구의 중년 여성으로 오히려 남성보다 더 과격하게 추격대의 과감한 범죄자 응징을 주문한다. 사건의 폭력성은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저 어떤 이유로든 폭력이 필요한 자들만 추격대에 동조하여 정중한 무관심으로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을 뿐이다. 이런 맥락 하에서, 개인, 사회, 국가를 일체로 이해하는 데이비즈의 초월적 정의는 이들에게 판 세상 이야기일 따름이다.

한편, 흑인 일꾼 스팅크스(Sparks)는 사람들에게 “재빠른 일꾼으로 철저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하였으며, 뺨속까지 정직한 자로, 내가 여태껏 아는 가장 청결한 검둥이”(71)라는 현실적 필요를 인정받아 추격대에 포함된다. 비록 사람들은 스팅크스의 처지에 공감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곁에서 가지 않는”(99) 등 그는 여전히 백인의 하층민일 뿐이다. 심지어 크로프트도 추위를 느끼며 밤에 산을 넘는 일이 익숙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무튼 열기를 사랑하는 검둥이”(117)라는 말을 무심결에 내뱉는다. 크로프트는 스팅크스가 추위를 많이 탈 것이라 생각하다가 남부에서 일했던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인식 전환을 시도한다. 그는 텍사스에서 일을 하며 흑인에 대한 차별을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내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죄의식을 느끼기 충분한 대강의 습관을 끄집어냈다”(118)고 인종차별적 사고로 경도되지 않도록 경계한다. 크로프트의 각성은 스팅크스가 자기 동생 짐(Jim)이 린치를 당한 경험을 토로하는 대목에서 말문이 막혔을 때 보다 분명해진다(119). 크로프트는 무리와 떨어져 추위에 이빨을 떨고 있는 스팅크스에게 다가가 자신의 코트와 술을 권하며 동행하는 등 정의로움을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구체적 실천을 지향한다. 이런 점에서 크로프트는 정중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추격대 사람들과 구별된다.

테틀리는 추격대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자신이 목적인 바를 이루려 한다. 그는 “다수의 의지에 따를 것”(92)이라며 다수의 의견에 근거한 지휘를 통해 28인의 추격대를 이끈다고 공언하지만, 그는 정의 구현이 아니

라 누구든 죽이는 일 자체로 린치를 원한다(80). 가령, 그는 “사람들에게 살인자를 총으로 쏘기보다 차라리 더 추악한 죽음이라 할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고 수배자 중 어느 하나라도 살아서 산을 빠져나가기 전에 셋 다 매복했다 덮쳐야한다”(115)고 공언한다. 테틀리는 견장이 달린 남부 군복을 입고 아들 제럴드를 대동하고 나타나 추격대를 이끈다(88). 그는 서부로 건너와 “남부 플랜테이션의 기둥 모양을 한 하얀 나무 저택”을 지었으나 “중매인이자 방패” 구실을 수행하던 부인이 죽고 부자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는다(79). 그는 남부 장교로 겪은 패배의식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화된 폭력 추구에 사로잡혀 주위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는 역마차에 탄 이들이 행선지와 주변 표지물을 이야기하자 범인이 아니라며 만족해 하지만, 크로프트는 역마차에 탄 스완슨(Swanson)이 테틀리가 린치를 가하는 패거리의 점을 알고 있었고 이를 테틀리도 감지하여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꿰뚫어 본다(134). 그는 심지어 어린 아이가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옥박치르는 엄마처럼 제럴드를 다루기도 한다(147). 이를 역사적 측면으로 들여다보면, 테틀리는 옛 남부의 이상을 구현하고자 “남북전쟁의 패배로부터의 모욕도 견디었고 새로운 미국으로부터도 물러선 채”(Bates 42) 서부로 이주한 것이다. 이런 그의 모습 속에는 남북전쟁의 국가적 폭력이 서부로 방향을 틀어 소집단과 개인의 폭력으로 전이된 현실이 투영되어 있다.

남북 전쟁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사회정치적 폭력성이 서부라는 공간에서 개인적 폭력으로 변환된 점은 3인의 수배자를 찾은 장면에서 분명해진다. 추격대는 “나바호족 반지”를 찬 멕시코인과 “전쟁 중에 북군에서 쓰던 모포 종류”를 덮고 있는 또 다른 2인이 불을 피우고 잠든 3인의 수배자임을 알아챈다. 나바호 인디언처럼 치장한 멕시코인인 마르티네즈(Juan Martinez)는 영어를 못하는 듯 가장하거나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 시도한다. 반면, 무리의 우두머리로 늙은 퇴역 북군이지만 전장후유증으로 “겁을 주면 자기를 살려줄 것들을 공상해내는”(161) 하드워(Alva



Hardwick)을 데리고 다니는 마틴(Donald Martin)은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주장한다(146). 크로프트는 여기에서 “내가 그러했듯이 테틀리도 이들이 이방인이라고 짐작”했음을 언급한다(144). 남부 장교 출신인 테틀리는 북군의 모포를 덮은 두 명의 북부인에게 적개심을 느끼고 피아식별 기제를 발동한다.<sup>4)</sup> 그는 “전쟁에서의 경험으로 머리가 다쳤다”(165)는 마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주목”하라며 군대 용어를 외친다. 그는 하드윅이 깜작 놀란 표정을 짓자 전쟁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165). 테틀리는 군대와 전쟁에 관한 기억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이 온전하다고 판단한다. 이런 판단은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힌 테틀리의 편협한 정신세계를 그대로 노출한다.

테틀리와 하드윅은 비록 남북전쟁에서 서로 다른 편에 서서 싸웠을지라도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서부라는 다른 환경 속에서 남군 장교 복장을 하고 “야전 장교와 같은 태도로 지휘”(183)하면서 폭력을 외부에 투사하려 하고, 후자는 이런 에너지를 내면화시켜 상흔으로 간직한 채 살아간다.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사람은 “구식 가치들을 위한 최후의 저항이라 할, 전쟁을 다시 치른다”(Bates 42). 즉, 이들의 대립 구도는 남북전쟁의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을 기억하는 두 가지 다른 양상, 즉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한편, 스팍스처럼 무리에서 소외된 제럴드는 아버지 테틀리의 강권으로 추격대에 가담하였지만 시대착오주의에 빠진 아버지와 갈등 관계이다. 그는 토끼를 쫓는 코요테 무리와 같이 사냥하는 인간들을 최악의 동물에 빗댄다(100). 제럴드는 인간의 떼거리 본능(pack instincts)이 생존을 위해 “말과 소를 정복”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서로를 정복하고 싶어 하고

4) 이처럼 남북 전쟁의 폭력성이 서부로 방향을 전환한 사례는 영화 속에서도 발견된다. 일례로, 여러 차례 남군과 북군 진영을 넘나들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떠돌이 총잡이들의 이야기인 영화 『석양의 무법자』(*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1966)도 이런 내용을 모티프로 사용하였다.

사람들을 소처럼 만들려는” 권력욕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고발한다(101). 제럴드는 관찰자 노릇을 하는 크로프트 역시 다수로부터의 격리라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크로프트는 “당신[크로프트]은 그저 진실을,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숨기고 있는 것”이라는 제럴드의 지적에 “손을 잡아당기며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105) 등 객관적인 군중 관찰자이면서도 그 또한 정중한 무관심에 편승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이를 통해 크로프트 또한 개인의 원대한 목표 달성이 아닌 현대인의 보편 심리인 소시민적인 삶을 체현하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크로프트를 위시한 작중 인물들은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겹가지 인물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독자의 또 다른 자아의 일종”(Crain 244)이기도 하다.

1인칭 관찰자라는 크로프트의 독특한 입장은 무리 속에서 정중한 무관심을 획득하면서도 동시에 “무리의 여느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개인”(Bates 46)이라는 자의식도 지닌 존재라는 양가성을 보여준다. 그는 제럴드를 관찰하면서 그의 솔직함이 적극적 삶의 의지보다 허무주의에 기인한 것임을 알아챈다. 제럴드가 설파하는 집단 폭력에 잠재된 개인의 두려움이란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Søren Kierkegaard)가 “대중 속으로 내뺄기 위한 모든 인간들이” 따지고 보면 “여느 개인으로부터 비겁함 속으로 내뺄는 것”(Kierkegaard 237)이라고 말한 점과 상통한다. 제럴드는 별 볼일 없는 존재들이 “대동단결하여 자신들과 지저분한 가십을 공유하지 않거나, 더 아름답거나 매력이 넘치거나 독립적이어서 뭔가 자기들보다 나은 사람들을 눌러 버리려 하는”(102) 인간의 야비함을 비판한다. 그는 브리저스 웰스 여자들이 카터의 전 여자친구 로즈를 단지 자기들보다 예쁘다는 이유로 창녀로 만들어 몰아낸 사실을 예로 든다(102). 특히 프레나(Frena Hundel)는 제럴드가 생각하는 원한을 품은 여자의 전형에 해당된다. 그녀는 남자를 차지할 능력이 되지 않기에 추격대를 포함하여 심지어 안면이 없는 3명의 수배자들도 모두 죽여 다른 여자들도 자

기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103). 제럴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른 누군가를 죽이는 것보다 자살하는 편이 더 낫죠. 아무튼 그것이 혼란을 정리하죠. 정말로 정리하는 것이죠”(107)라며 적극적 사태 개입이 아니라 비관론적 자기 파괴를 내놓는다. 제럴드가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으로 자살을 암시한 점은 앎과 실천의 괴리 역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을 배태시킨다는 시사점을 준다.

크로프트의 관찰자적 시각으로 추격대 사람들과 거리를 둔 채 사태를 인식하려는 점은 옥스보우 계곡 주위를 둘러보면서 피를 보려 안달이 난 인간들의 모습과 대조적인 자연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는 것에 잘 드러난다.

여기[옥스보우 계곡]는 쌀쌀하지만 솔향이 풍기는 사랑스러운 계곡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 만큼의 외로움이 있는 곳이다. 건기가 아니면 누구도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주 가끔, 여러분이 늦여름에 이곳을 지나게 된다면, 어느 양치기가 가운데 약간 바깥쪽에서 작은 당나귀와 개와 양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머지 시간 동안 이곳은 다람쥐, 얼룩다람쥐 그리고 어치의 것이다. 이들은 모두 숲 가장자리에서 활기차게 서로를 꾸짖으며 집적거리고 있을 것이리라.

It [Ox-Bow] was a lovely, chill, pine-smelling valley, as lonely as you could want. Scarcely anybody came there unless there was a dry season. Just once in a while, if you passed in the late summer, you'd see a shepherd small out in the middle, with his burro and dogs and flock. The rest of the time the place belonged to squirrels, chipmunks and mountain jays. They would all be lively in the edge of the wood, scolding and flirting. (113-114)

위의 인용은 옥스보우 일대가 여름 한 철을 제외한다면 동식물들이 주인인 공간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은 “누군가가 이전에 그 곳에서 살아보려 시도했지만” 그게 누구일지라도 “몇 년 지나기도 전에 포기”하고 말았으며 다 부서지고 썩어가는 집에서 “소나무와 산썩이 이를 뚫고 씨를 뿌리는” 자연의 승리를 기술하는 대목에서 구체화된다(114).

인간사에 영향을 주는 자연의 힘은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테틀리는 군사작전처럼 일사 분란한 움직임을 강조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은 말을 탄 자들이 누구이고 나무는 무엇인지 분간할 수 없는”(141) 지경에 이르고 만다. 옥스보우 계곡에 눈이 내려 소리를 포함하여 온갖 것들이 뒤섞여 사태 파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크로프트는 사태 분간이 어려운 옥스보우의 기후로 인해 산길을 지나다 역마차와 맞닥뜨린 뒤에 추격대와 총탄을 주고받을 때 왼쪽 어깨에 총을 맞고 부상을 당한다. 사태 분간이 곤란한 자연 조건은 크로프트가 총상을 입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크로프트는 총상을 입어 사건에서 한 발 비켜선 점은 그가 정중한 무관심에 매몰되었다는 책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구실이 된다. 그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테틀리와 추격대원의 맹목성을 뚜렷하게 부각시키고 데이비즈와 제럴드의 무기력함도 질타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취하면서 관찰자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한다. 반면에, 크로프트의 의식이 오락가락 한다는 점은 그가 원하는 것 위주로 선택적 기억과 편집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관찰자인 것만은 아니라는 정반대의 해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제럴드가 지적했듯이 그 또한 정중한 무관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틴은 눈발이 날리는 가혹한 날씨로 사람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사실과 드류로부터 영수증을 받지 않는 두 가지로 인해 곤경에 처한다. 그는 범죄 혐의만으로 처단할 범죄자를 확신하는 테틀리와 동조자들에게 분노하며 혐의를 전면 부정하지만, 가혹한 날씨는 사건의 동인으로 작용하여 정중한 무관심으로 버틸 수 없는 한계상황을 연출한다. 예를 들어, 판리는 “우리를 추위에 얼려 죽일 셈이냐”(151)며 “이곳에서 법은 극단적으로 느리고 부주의하다”(155)며 시간낭비를 질타한다. 또한, 마틴은 드류 목장에서 구입한 후 끌고 가는 소 50마리의 영수증을 받지 않아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리니 드류에게 들었다면서 “제가 이틀 전에 막

들은 바로는 이번 봄까지 하느님에게도 한 마리도 팔지 않는다고 했어요”(157)라고 외치자, 마틴은 드루씨가 호의를 베풀어 소를 자기에게 팔았다고 응수한다. 이러자 테틀리도 이 때 “내 입장에서 너라면 어떻게 냐?”(157)며 조급증을 내비치기 시작한다.

테틀리는 마틴이 누구도 총을 쏘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자 세 사람을 묶으라고 명령을 내린다. 이제 “어느 누구도 아무튼 다시 일 전체를 다시 거쳐야 했을 때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168). 추위와 조급증으로 인내심이 한계에 달한 군중은 제대로 된 정의를 구현하는 생산적 가치 창출이 아니라 일시적 감정의 소비에 치중한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의미의] 생산에 즐기치게 주파수를 맞추는 내적지향 인간과 달리, 계속 팽창하는 소비의 프론티어에 주파수를 맞추며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는 타자지향적 인간”(Riesman 78)이라 볼 수 있다. 이들은 정중한 무관심이라는 탈을 벗어 던지고 마틴 일행의 짐을 무단으로 뒤지며 약탈의 형태를 띤 소비적 본능을 적나라하게 발산한다. 아무리 배가 고파서 그랬다지만, 크로프트는 분위기와 배고픔에 못이겨 취식 행위에 가담한 스스로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여러분이 그를 죽이기 전에 그가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음식을 먹는 짓을 하면 안된다”(169)며 추격대 모두를 싸잡아 비난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진짜 도둑은 오히려 28인의 추격대라는 점이 까발려지는 것이다.

마틴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는 편지를 써서 가족에게 전달해달라고 제안하고 이에 테틀리가 잠시 결박을 풀어주라고 명령한다. 마틴의 편지를 받은 데이비즈는 편지를 공개하면 린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내용 공개를 제안하지만 마틴은 이를 쓸데없는 짓이라며 만류한다(174). 이윽고 시간이 흘러 형을 집행할 순간이 되자, 사람들은 마틴 일행에 대해 일말의 인간적 측은함을 느끼는 자신을 책망하면서 속편하게 빨리 일을 마무리 짓자는 생각을 품게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결심을 했거나, 혹은 나머지 사람들이 결심을 했다고 느꼈으니, 이들 자신의 동정심은 부끄러운 것이라 감추어야 한다고 느꼈다. 나도 그런 식으로 느꼈다. 우리 중 누구도 편지를 보지 않았던 것이다.

Most of the men had made up their minds, or felt that the rest had and that their own sympathy was reprehensible and should be concealed. That was the way I felt. None of us would look at the letter. (180)

이 소설에서 날이 밝을 때까지 형 집행이 지연되는 이른바 “느린 사건 전개”는 지루해진 “독자들이 폭력적 해결책으로 정죄하는 것을 바라도록 유도”(Mitchell 248)하여 집단 심리를 간접 체험하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독자들은 1인칭 관찰자 크로프트와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제 끝을 보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적 감정을 부질없는 연민이라 자위하며 올바른 정의에 눈을 감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태도야말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사태를 냉철히 파악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감정적인 판단에 해당된다. 사람들은 ‘감정적’ 판단으로 후다닥 사태를 끝맺고 싶어 하며, 결과적으로 마틴의 편지를 읽어보면서 사태의 진실을 차근히 따져볼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심지어 카터조차도 “이 일에 내 감정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181)며 사태의 방조자로 한 발 물러선다. 사람들의 방조로 사건이 비극으로 치닫게 되면서 “이야기는 스스로 굴러가는 정의(do-it-yourself justice)의 어두운 일면을 제시하고 만다”(Felix 2000). 마틴은 “당신은 정의에 관심이 없소. 당신은 심지어 당신이 사람들을 제대로 잡았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없소. 당신은 당신의 방식을 원하는 것, 그뿐이오. 당신은 뭔가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죄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당신이 아는 전부란 말이오”(195)라며 자기만의 맹목성에 사로잡힌 테들리를 비판한다. 마틴은 이를 통해 스스로 굴러가는 정의가 진정한 정의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다.

동이 틀 무렵, 추격대는 세 사람의 목에 밧줄을 걸고 각각 말 위에 앉힌 후 나뭇가지 너머로 이들의 목에 감긴 밧줄을 넘긴 후 안장에 다시 묶는다. 형 집행 총소리로 말이 놀라 앞으로 움직이면 세 사람이 도르래의 추처럼 나뭇가지 위로 올라가 목이 졸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테틀리는 이 순간에 여장부인 그라이어,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된 판리, 그리고 마치 못해 떠맡은 제럴드에게 줄을 잘라 세 사람을 추락사 시키도록 명령한다. 이 때, 그라이어와 판리가 줄을 잘랐음에도 테틀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이 졸려 고통 속에 죽어가는 마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그러자 테틀리는 제럴드를 총으로 때려 쓰러뜨린 후 판리에게 마틴을 썩 버리라고 명령한다(189). 제럴드는 소극적 저항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나름의 행동을 취하기는 하지만, 마틴의 고통스러운 죽음에 반기를 드는 적극적 저항이나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인본주의적 실천은 보여주지 못한다.

추격대가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타일러 판사, 보안관 리슬리, 마틴에게 소를 판 드류, 데이비즈 가게 직원 조이스,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키크에이드가 나타난다(191). 타일러는 추격대를 향해 “살인, 살인이요”라고 강하게 소리치며 자기가 경고했듯이 모두 범죄를 저질렀으니 다들 책임 지라고 으박지른다(191). 이런 타일러의 주장은 판사로서 나는 할 일을 했으니 책임이 없다는 점을 공공연히 내비치는 면피 행위에 해당된다. 그는 사태의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칙과 분위기 사이에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여 추격대 출정을 허락하였으므로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가 추격대 출발 전에 전반적인 분위기에 짓눌려 “급박하게 행동을 취해야 할 상황들은 있을 것이요 허나 린치는 내가 용서할 수도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이요”(93)라는 자기 보호용 언사를 덧붙이며 출정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사건 처리의 주도권은 관료주의적 책임 회피를 시도한 판사로부

터 집행자인 보안관 리슬리에게 넘어온다. 판사와 달리, 리슬리는 무조건적 법집행 대신 상황을 감안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그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무언가를 판사에게 말하고 나서” 날씨를 탓하며 “나는 여기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였소. 우리는 눈보라를 뚫고 지나갔으며, 나는 급하게 이동하는 중이었소”(191)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 즉, 리슬리는 범죄를 저지른 추격대 가담자를 잡아야 하지만 눈보라 때문에 이들을 잡지 못하였다고 환경 탓으로 돌리며 사건을 흐지부지 종료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피아식별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공하여 크로프트 부상, 린치 집행 재촉, 리슬리의 범죄 묵인 등 주요 단계마다 동인으로 개입한다. 리슬리는 진짜 도둑들을 잡기 위한 추격대를 재결성한다며 10명의 지원자를 모집하고, 이에 테틀리까지 포함한 모든 이들이 즉각 찬동한다(192). 이런 사람들의 태도 변화는 다시금 정중한 무관심의 탈을 쓰고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묻어버리는 동시에 바뀐 추격대장 하에서 다시금 집단 폭력에 가담하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전가되는 악순환은 자살과 같이 외부로 향하는 폭력을 내부로 돌리는 내파(implosion)되는 방향으로 구체화된다. 무고하게 린치를 가한 책임을 주모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가운데, 테틀리와 제럴드의 자살은 성찰적 지성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폭력을 어떻게 종식시킬 것이냐는 문제를 대하는 작가적 고민의 산물이다. 스미스는 일부 사람들이 진짜 도둑들을 잡으러 떠나자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욱보인 테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196), 심지어 테틀리를 린치하려는 모임의 결성도 주도한다(218). 제럴드가 집으로 돌아가 자살을 하고(206) 이를 알게 된 테틀리 또한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등 뒤에 커다란 남군 기병대 칼을 꽂고 매트 위에 얼굴을 묻고 누운 채”(217) 자살하는 대목은 폭력의 대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폭력이 소멸될 수 있다는 작가의 인식을 반영한다. 또 다른 폭력을 요청하는 스미스의 모습과 무리에서 떨어져나온 테틀리 부자의 자살은 정중한 무관



심의 폭력적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크로프트는 캔비 살롱으로 돌아와 상처를 치료하면서 데이비즈와 성찰적 지성을 갖고 옥스보우 사건을 되짚어본다. 여기에서 데이비즈는 『고독한 군중』에서 리즈만이 지적한 전통지향성과 내적지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전통지향적 인간은 “창피함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고 내적지향적 인간은 주어진 원칙이라는 경로에서 이탈할 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점이 데이비즈에게 해당되기 때문이다(Riesman 24). 데이비즈는 자기가 세 명을 죽인 것과 진배없다고 자책하자 크로프트는 우리 모두가 비난받아야 하므로 누구도 비난받을 수 없다고 답한다. 데이비즈는 “사람들이 기초적인 정의에 관한 어떤 개념도 없었던 것”이기에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가당치 않다고 본다(201).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가 천천히 계속하기를, “저 모든 사람들이 과실죄를 인지하지만, 태만죄는 아니죠. 사람들은 이제 죄책감을 느끼지만, 일이 마무리 되었을 때는 비난할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죠. 이들은 테틀리를 고른 것이고”

“만약 다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내가 운을 뗐다.

“아니,” 그가 가로막기를, “나머지 여러분 이외의 다른 누군가는 아니겠죠. 그는 그저 희생양입니다. 그는 과실죄만을 인지했을 뿐이고, 이를 느낄 수는 없었던 것이죠. 테틀리에게 죄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Most people,” he went on slowly, “all of those men, see the sins of commission, but not of omission. They feel guilty now, when it’s done, and they want somebody to blame. They’ve chosen Tetley.”

“If it’s anybody,” I began.

“No,” he interrupted, “not any more than the rest of you. He’s merely the scapegoat. He recognized only the sin of commission, and he couldn’t feel that. Sin doesn’t mean anything to Tetley any more.” (201-02)

데이비즈는 사람들이 “과실죄”를 범했고, 테틀리는 이 와중에서 희생양

이 된 것이며,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나 막지 못하였으므로 “태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토로한다. 그는 차라리 테틀리는 “타락하여 사람을 죽이려 드는 짐승”(204)이기에 비난받을 수 없지만 자신은 행동에 옮기지 못한 죄를 저질렀다고 자책한다. 데이비즈는 “당신은 [그마틴]가 무죄인지 몰랐잖소”라는 크로프트의 언급에 “당신은 몰랐지만, 나는 알았대요”라며 편지에 담긴 내용을 읽어 본 후 그 속에 무죄의 증거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을 토로한다(208). 데이비즈는 적법한 처결을 중시하였으므로 총으로 테틀리를 위협하는 적법하지 않은 일처리와 원천적으로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Peterson 246). 크로프트는 모두가 그 편지를 볼 기회가 있었음에도 데이비즈가 “테틀리의 악에 맞서는 빛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동안에 “혹여 3인이 페로 죽임을 당하고 한 명이 자살한 것에 책임을 느끼면서 어떤 즐거움이라도 느끼기라도 한 것은 아니냐”(210)며 결과적으로 사태의 올바른 해결 방향, 일종의 정의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만 짐을 질타한다.

데이비즈는 아래와 같이 스스로를 남들과 다른 품격을 지닌 존재로 포장하고 싶었던 알팍한 정의감에 들떴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크로프트에게 털어놓는다.

“나는 온갖 구실들을 생각해 보았죠. 나는 평화와 진실의 전도사라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것이죠. 폭력의 상징조차도 착용할 수 없다고 말이죠. 나는 올바르고 영웅적이며 조용하고 합리적이었던 것이죠.”

그는 말을 멈추었고 나는 그의 손 아래에서 침대가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엄청나게도 겁쟁이같은 거짓말이죠.” 그가 격하게 말했다. “모든 태도가 공허하고 용기없는 가식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진실은 마지막 결전으로 치닫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내가 총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안의 유약함으로 인해 항상 칭얼거리며 방어막을 쳤던 것이지요. 심지어 나는 저 사람들을 구하려는 것조차 기대하지 않았습시다. 내

가 가장 희망했던 것은 무언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었죠.  
“무언가 말이죠,” 그는 씩씩하게 말했다.

“I’ve thought of all the excuses. I told myself I was the emissary of peace and truth, and that I must go as such; that I couldn’t even wear the symbol of violence. I was righteous and heroic and calm and reasonable.”

He paused, and I could feel the bed shaking under his hands.

“All a great, cowardly lie,” he said violently. “All pose; empty, gutless pretense. All the time the truth was I didn’t take a gun because I didn’t want it to come to a showdown. The weakness that was in me all the time set up my sniveling little defense. I didn’t even expect to save those men. The most I hoped was that something would do it for me.

“Something,” he said bitterly. (213)

크로프트는 테틀리에 대한 비난과 스스로에 대한 책망이 반복되는 상황을 불편하게 관찰한다(214). 크로프트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데이비즈가 크로프트의 또 다른 자아 혹은 선한 천사”(Bates 45)이기 때문이다. 즉, 크로프트는 데이비즈를 통해 내적지향적인 자신의 일면을 마주하였던 것이다. 데이비즈가 스스로를 강하게 비난하지만 크로프트는 “당신은 사건에서 그 사람[테틀리]을 끄집어 내기 위해 그의 머리를 내리치는 편이 나올 듯 했소”(215)라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강하게 쏘아 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비즈가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내리치는 것이 부질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더 강하게 “당신은 그를 죽였어야만 했다”(215)고 썰기를 박는다. 두 사람의 대화가 평행선을 긋는 장면은 강요된 합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데이비즈와 같은 소수자의 다양한 의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낫다는 작가의 의도된 불화일지도 모른다. 즉, “데이비즈는 ‘이제 다 끝났다’는 크로프트의 도발적 태도에 저항”하고, 크로프트는 그를 설득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다양성의 공존 및 부단한 대화와 설득이라는 “클락 소설의 ‘근본적인 추진력’이 달성된

다”(Hada 149)는 것이다.<sup>5)</sup>

데이비스와 크로프트의 심각한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홀에서 “어느 여자가 목 깊은 곳에서 그르렁거리며 기뻐하는 웃음” 소리를 내고 수많은 남자들도 이에 웃으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린다(205). 크로프트는 “로즈와 그녀의 남편이 저 아래 있었다”(206)는 점을 알아챈다. 로즈가 경망스럽게 웃는 모습(219)은 크로프트와 카터가 이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한다. 소설은 크로프트와 카터가 들종다리 소리를 들으며 런치 사건에 대한 환멸을 뒤로 한 채 자연 속으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220).

작품의 초·중·후반부에 각각 제시되는 들종다리(meadow lark)의 이미지는 폭력의 악다구니로부터 도피하여 정신과 육체의 위안을 주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크로프트는 캔비 살롱의 도박판 싸움 정리로 “실내가 한동안 들썩거리는” 심란한 상태에서 바깥의 신선한 바람 속에 들종다리가 봄의 기운이 실린 “‘척-척-어-릭’ 거리고, 또 한 마리가 저 멀리 높이서 ‘팅-팅-어-팅’ 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25). 들종다리 묘사 속에는 세속적 폭력과 거리를 두면서 정신과 육체의 평안을 도모하는 크로프트의 의지가 담겨 있다. 그는 추격대가 산 속에 들어갔을 때 석양이 지면 잠시나마 날아올라 노래하는 들종다리를 볼 수 있어서 어디에 있을까 찾고자 하지만 돌풍이 심하게 불어 찾지 못한다(97). 이런 점은 “본래 인간들이, 들종다리들처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힘에 노출되었을 때 매우 취약”(Cochran 262)하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들종다리는 작품 맨 마지막에야 다시 등장한다. “연이어 텅-텅-텅 들종다리 소리가 났다. 그리고 또 다른 녀석이, 훨씬 더 멀리서, 텅-텅-텅 거리는 소리”(220)에서 나타났듯이, 크로프트가 지향하는 공간은 인간 질서로부터 벗어나 생명이 약동하

5) 그러나 전쟁 시기에 만들어진 동명의 영화는 초월적 정의의 승리를 강조하는 입장을 강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영웅이 없는 실존주의적인 원작과 달리 데이비스를 영웅으로 묘사한다(Crain 247).

는 야생자연이다. 크로프트가 인간사 밖으로 눈을 돌린 모습은 “집 안팎에서의 고독함이야말로 수많은 내적지향적 아이들의 운명”(Riesman 69)이라는 말에 드러나듯이 그의 내적지향성을 품성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가 20세기 현대사회에 부적응자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 3. 결론

이 작품의 주제인 인간 소외와 자연 풍광 묘사는 싸구려 소설(dime novel)의 폭력적인 서부 이미지로부터 탈피하였다는 점에서 인디언 원주민을 포함한 소외된 인물의 상처와 치유, 그리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성숙함이라는 후대 작가들의 작품 주제 구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학문적 위상은 클락이 이 작품으로 인해 네바다 문학을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로 자리매김하여 “네바다 문학의 원로”(Ronald, 246)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사실로부터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초기 비평 중에서는 클락과 “동등한 능력을 지닌 작가 중에서 페이지에 풍경을 더 충실히 채워 나가면서도 인간 유형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서 위기에 봉착한 경우가 없다”(Young 111)며 작품의 성격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혹평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인물 구도가 투박하게 형상화되었다면 작품이 나온 1940년대 초의 독자들 혹은 평자들이 “전통적인 서부 이야기의 익숙한 공식을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플롯”(Etulain 107)으로 당혹스러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작품은 실제로 의로운 총잡이가 악당을 물리치는 통념적 서부 소설 구도를 거부하고 인간의 본성과 사회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지향하였다. 이 작품은 선인과 악인이라는 이분 구도가 아니라 크로프트처

럼 “계속적으로 듣고, 보고, 수용하는” 평범한 인물(everyman), 테틀리와 같이 악하지만 행동하는 악인(evil man), 그리고 데이비즈나 제럴드처럼 착하지만 행동이 부족한 선인(good man)이라는 “3가지 주요 인물 유형”을 제시하여 폭력 사건을 다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Andersen 288, 289). 이 중 평범한 인물 유형은 선인과 악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정중한 무관심을 누리려는 사적 이익에 매몰된 독자 자신을 되짚어 보도록 한다.

이 작품은 여러 시대의 다양한 인물들이 19세기 말 서부 변경지대라는 특정 시공간에 모여 벌이는 폭력 사건을 묘사하였다. 마을 가게주인 데이비즈는 인간, 자연, 천상계를 일원론적으로 파악하는 19세기 초·중엽의 초월주의자로, 데이비즈와 동일한 가치관을 지닌 오스굿 목사는 종교적 권위를 상실하던 19세기 중엽 목사로, 목장주 테틀리는 남북전쟁 이전의 옛 남부 가치의 수호자로, 흑인 일꾼 스팅스는 남부의 인종주의를 체험한 흑인으로, 타일러 판사는 19세기 말 점잖은 전통(The Genteel Tradition)의 인습에 사로잡힌 상류층으로, 테틀리의 아들 제럴드는 허무적 세계관에 탐닉하는 20세기 중반 실존주의자의 이미지로, 판리와 바틀렛을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집단 논리에 매몰된 20세기의 군중으로, 그리고 총잡이이자 일꾼 크로프트와 카터는 19세기에 서부 지역을 떠돌던 하층 백인으로 묘사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작품을 포함하여 대중적인 서부 이야기의 신화화된 영웅을 공식처럼 다루지 않는 작품들이 반-서부적(anti-western)일지는 몰라도 대중적인 이야기를 연장한 것에 불과하는 주장(Bloodworth 289)은 재고되어야 한다. 폭력과 사회를 역사적 관점으로 바라보려는 문제의식이 작품에 투영되어있기 때문이다. 인물들의 폭력 속에는 개인적 불만 뿐 아니라 남북전쟁의 상흔이나 서부 변경지대의 문명화에 따른 부작용과 같은 역사적 요인들이 녹아있는 것이다.

폭력은 특정 가해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거나 양심적 개인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집단 심리 이상의 사회구조적 요인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이 작품은 “폭력, 비인간성이라는 19세기의 살육, 그리고 20세기로 간단히 확장해보았을 때, 국가 간 전쟁이라는 배경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보편적 질문을 제기”(Cochran 264)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폭력의 의미 조명을 시도한 것이다. 이와 같이 시공을 초월하여 인간 삶의 주요 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작품의 특성은 서부 이야기의 전형을 답습하거나 단순히 뒤집어 제시한 것 이상의 문학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폭력에 가담한 후 일을 그르칠 경우에 주모지를 탓하며 자신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려는 군중 심리는 현대인의 삶 속에 침윤되어 있는 보편화된 폭력의 문제를 건드린다. 이 작품을 통해 리스만이 던진 현대인의 고독과 소외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강함과 유함이 혼합된 필멸의 존재라 불리는 우리”와 다르지 않은 크로프트라는 평범한 개인의 생존에 주목한다면, 이 작품은 “폭력적 군중의 심리를 놀라우리만치 꿰뚫는 연구”(Cochran 255)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사회생활을 하며 다양한 폭력에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가담한 후 문제가 외현화되면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 듯 행위의 주도세력만 비난하는 행태를 반복한다. 이 작품은 서부 외딴 곳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의 이모저모를 파헤치면서 과실죄가 아니라고 해서 태만죄가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처럼 덮여지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여러 인물들을 19세기 말 서부에 집결시킨 문학적 실험은 고독한 군중의 정중한 무관심으로 가려진 폭력의 본질에 관한 성찰을 담고 있다. 폭력은 다양한 원인이 얽혀 발생하므로 몇 개의 특정한 원인으로 귀속될 수 없기에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정의나 다수의 잠정적 합의 중 무엇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 것이다.

## Works Cited

- 이승은. 「다시 쓰는 서부 이야기: 월터 반 틸버그 클라크(Walter Van Tilburg Clark)의 『만곡부 사건』(*The Ox-Bow Incident*)」. 『영미문화』 9.3 (2009): 197-217.
- Andersen, Kenneth. "Character Portrayal in *The Ox-Bow Inciden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4.4 (1970): 287-98.
- Arendt, Hannah. *On Violence*. New York: Harcourt, 1969.
- Bates, Barclay W. "Clark's Man for All Seasons: The Achievement of Wholeness in *The Ox-Bow Inciden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3.1 (1968): 37-49.
- Bloodworth, William. "Literary Extensions of the Formula Wes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14.4 (1980): 287-96.
- Clark, Walter Van Tilburg. *The Ox-Bow Incident*. 1940. New York: The Modern Library, 2001.
- Cochran, Robert W. "Nature and the Nature of Man in *The Ox-Bow Inciden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5.4 (1971): 253-64.
- Crain, Mary Beth. "*The Ox-Bow Incident* Revisited." *Literature/Film Quarterly* 4.3 (1976): 240-48.
- Etulain, Richard W. *Telling Western Stories: From Buffalo Bill to Larry McMurtry*. Albuquerque: The U of New Mexico P, 1999.
- Felix, Robert Louis. "*The Ox-Bow Incident*." *Oklahoma City University Law Review* 24 (1999): 645-60.
- Flora, Joseph M. "Relocating Southerners in the West." *The Southern Literary Journal* 33.2 (2001): 150-52.
- Goffman, Erving. *Behavior in Public Places*. New York: Macmillan, 1963.
- Hada, Kenneth. "Clark's *The Ox-Bow Incident*." *The Explicator* 59.3 (2001): 147-49.
- Houghton, Donald E. "The Failure of Speech in *The Ox-Bow Incident*." *The English Journal* 59.9 (1970): 1245-51.
- Kierkegaard, Søren. "Concerning the Dedication to the Individual." *A Casebook on Existentialism*. Ed. William Spanos. New York: Crowell, 1966. 235-41.



- Mitchell, Lee Clark. *Westerns: Making the Man in Fiction and Film*. Chicago: The U of Chicago P, 1996.
- Peterson, Levi S. "Tragedy and Western American Literature." *Western American Literature* 6.4 (1972): 243-49.
- Riesman, David. *The Lonely Crowd*. New Haven, CT: Yale UP, 1961.
- Ronald, Ann. "Nevada." *Updating the Literary West*. Ed. The Western Literature Association. Fort Worth: Texas Christian UP, 1997. 246-51.
- Slotkin, Richard. *Gunfighter Nation: The Myth of the Frontier in Twentieth-Century America*. 1992. Norman: U of Oklahoma P, 1998.
- Tepker, Harry F. "The Ox-Bow Incident." *Oklahoma City University Law Review* 22 (1997): 1209-21.
- Westbrook, Max. "The Archetypal Ethic of *The Ox-Bow Incident*." *Western American Literature* 1.2 (1966): 105-18.
- Young, Vernon. "Gods Without Heroes: The Tentative Myth of Walter Van Tilburg Clark." *Arizona Quarterly* 7 (1951): 110-19.

- 논문 투고일자: 2015. 11. 30
- 심사 완료일자: 2015. 12. 19
- 게재 확정일자: 2015. 12. 22

**Abstract**

**Civil Inattention in the Lonely Crowd:  
The Violence of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n West in Walter Van Tilburg  
Clark's *The Ox-Bow Incident***

Dong-hwan Lee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twentieth-century civil inattention in the lonely crowd is rendered into the mob violence of the nineteenth-century American West in Walter Van Tilburg Clark's *The Ox-Bow Incident*. Each character, who feels fear of social isolation and physical violence, gets comfort in return for his or her implicit consent of majority opinions. Literary imagination unfolds the congregation of different character types retrieved from the American history to illuminate the essentials of mob psychology. The violence rises to the surface when people with their own reasons of discontent meet together in a specific time-space. It is noteworthy that several textual descriptions of the American wilderness show time-space is crucial to understanding the heart of mob violence.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tragic violence, people should not only avoid civil inattention which blocks the shape of a mob but also seek for tranquilities of nature which relieve personal discontents.

**Key Words**

Mob Violence, Justice, American West, Literary West, Westerns, Civil Inattention, Lonely Crowd, The Ox-Bow Incident, Walter Van Tilburg Clark, Wilderness